국민 10명 중 7명 "인터넷 5·18 왜곡 심각"

70% "특별법 개정해 엄단…진상규명 국정과제 채택해야"

5·18재단 설문조사…북 연결 잘못된 인식 개선 대책 필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가 인터넷 공간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거나 익명에 기대어 인터넷 공간에서 5·18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10명 중 7명은 5·18진상규명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이 같은 설문결과를 담은 '5·18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5·18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 지난 4월 한 달간 성인(만 19세 이상) 1000명, 청소년(중·고등학생) 1140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5·18왜곡행위에 대해 성인 조사 대상자의 6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74.8%가 '심각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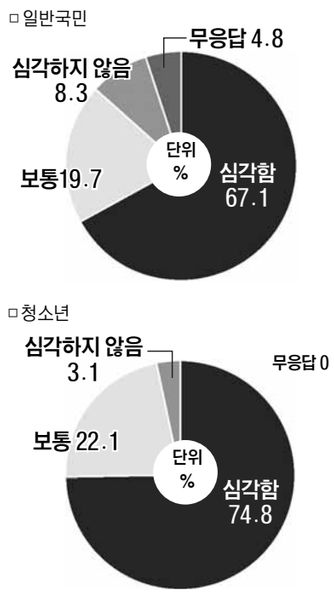
5·18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성인 70.6%, 청소년 72%)'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국민의당 발의)은 1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광주일보 4월 7일자 1면〉이다. 이 법안은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등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을 담고 있다. 5·18단체는 물론 적지 않은 광주시민들은 이 개정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전두환 회고록은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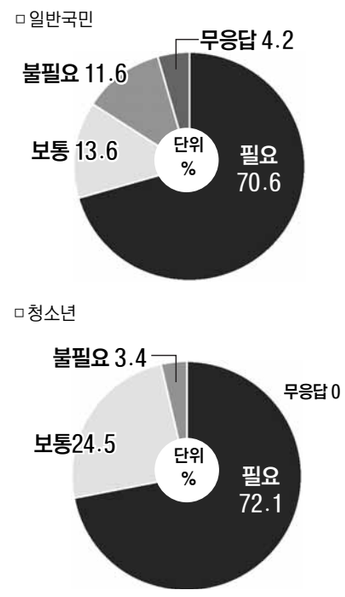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성인 응답자 10명 중 7명은 5·18진상규명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69.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라는 데는 77.1%의 성인이 동의했다. 청소년들도 77.3%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5·18이 불순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성인 응답자의 74.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6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성인 11.9%, 청소년 8.4%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연결돼 있었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 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인터넷 등 5·18 비방과 왜곡



■ 5·18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히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성인 중 46.4%, 국립5·18민주묘지의 존재를 모르는 응답자는 35.5%, 5·18특별법의 존재를 모르는 응답자가 각각 51.7%로 집계된 점은 5·18재단과 광주시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37년전 오늘 어떤 일이

"이땅의 어둠을 밝히자" 3만명 도청 앞 횃불시위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오.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이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누리에 밝히자는 뜻입니다….'

1980년 5월 16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민족민주화성회'를 이끌며 횃불대행진을 앞두고 열변을 토한 고 박관현 열사의 연설이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은 5·18 직전까지 광주시내 각종 시위를 주도, '광주의 아들'로 기억되고 있다.

이날은 '5·16군사쿠데타' 19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남대·조선대 등 대학생 3만여명은 오후 4시 도청 앞 광장에서 '민족민주화성회'를 개최했다. 사흘 연속 민족민주화성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오후 7시30분 횃불 점화에 앞서 "횃불행진을 통해 잠자는 시민의식을 일깨워 이 땅의 어둠을 밝히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즉각 해제 ▲언론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 ▲사법권 독립을 외치며 횃불을 높이 들었다.

대학교수 400여명은 행렬 앞과 뒤에서 함께 했고, 경찰 1000여명도 횃불가두시위를 보호했다. 대학 스쿨버스는 횃불시위에 쓰일 기름통을 싣고 다니며 횃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공급했다.

이날 밤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은 타오르는 횃불로 대낮같이 밝았으며, 시민들은 하나둘 횃불 주위로 모여 하나가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 타임라인, 사건 중심→분 단위 개정

기념재단, 학살 현장도 시간·장소 등 구체적 표기

늦어도 27일까지 업데이트

'1980년 5월 14일 오전 7시 28분, 특전사 출동준비 및 대기 지시'

5·18기념재단이 이달 중 공개 예정인 누리집 타임라인에 1980년 5월 항쟁 전개 흐름을 소개하는 첫 번째 사건 개요다.

재단은 주요 사건 중심으로 나열했던 5·18 민주화운동 타임라인을 열흘간 항쟁에 초점 맞춰 대폭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타임라인은 A4용지 60쪽 분량의 세부 설명이 덧붙는다.

금남로 집단발포가 있었던 21일의 경우 '오전 0시 공수부대 광주시 외곽 철수 승인' 이후 전개된 사건을 최소 10분 단위로 수록했다.

계엄군이 자행한 시민 학살 현장도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주변 지역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까지도 출처를 담아냈다.

타임라인은 국회·정부기록물보관소·육군본부·검찰·기무사 등에서 30여 년간 자료를 수집한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이 초안을 작성했다.

5·18재단은 정 전 회장과 이재의씨(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집필자)가 감수를 마치는 대로 최종 회의를 연 뒤 5·18타임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열흘간 항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16일께 최종 점검 후 17일, 늦어도 이달 27일까지는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며 "기존 타임라인에서 명확하게 소개하지 못했던 사건도 제대로 규명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들불상 수상자에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

2014년 6월 24일 세월호 3차 공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시민 상주모임' 회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이 제12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제12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을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민상주모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몇몇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매일 또는 매주 모여 촛불을 들었고, 동네마다 서명을 받고 집집마다 플래카드를 걸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시민상주를 자처하며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활동했다.

들불열사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시민상주모임은 지난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가장 충실했고 현재도 마을별 모임 등을 통해 세월호 진실규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민들간의 자유로운 연대활동을 통해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12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들불열사 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부상을 수여한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안전띠 덕분에…

고흥서 초교 통학버스 전복

초등생 등 12명 경미한 부상

15일 오전 8시25분께 고흥군 금산면의 한 도로에서 모 초등학교 통학 버스가 길옆 논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통학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0명과 인솔자 1명, 운전기사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초등학생을 비롯한 통학버스 탑승자 12명 전원은 안전띠를 매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편도 1차선을 달리던 통학버스가 도로를 벗어난 뒤 30여m를 달리다 길옆 오른쪽 논으로 처박혔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기사 김모(71)씨가 "깜박 졸음운전을 했다"고 말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스승의 날' 제자 발 씻겨주는 선생님 광주 동명고등학교 교사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정에서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술자리 여대생과 즉석만남 경찰관 성폭행 혐의 입건

쌍나팔

○…술자리에서 여대생과 '즉석만남'을 한 현직 경찰관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

○…15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소속 A(26)순경은 지난 13일 밤 여수의 한 주점에서 여대생 B(19)씨 일행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하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경찰은 인근 CCTV 확인과 주변 정황,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인데, A순경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 19914	1	남구 대남대로193번길5-1, 1동 4층 427호 77.4㎡	아파트	97,000,000 97,000,000	공부상1동이나현황나동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6타경 65238	1	동구 필문대로171번길17-6 1~2층각156.12㎡[각4가구] 3층158.34㎡][3가구] 제시외 옥탑방 10㎡	다가구주택	447,139,500 447,139,500	일괄매각.제시외 옥탑방포함
		동구 산수동 528-16 275.1㎡	대		
2016타경 65436	1	동구 동명동 178-7 11평3홉 제시외 가추등 31.5㎡	단독주택	95,727,750 95,727,75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178-7 149㎡	대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20105	1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540-9 4000㎡	답	140,000,000 140,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166-10 2623.7㎡	답	81,334,700 81,334,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20242	1	담양군 무정면 영천리 산2-2 3499㎡[김철지분4분의1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임야	4,898,600 4,898,600	지분매각.분묘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	동소 산2 1077㎡[김철지분5분의1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임야	1,787,820 1,787,820	분묘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6타경 20341	1	나주시 동강면 월송리 742 1373.4㎡[유춘자3/45,임소연,임동건,임복희,임성근,임정아,임봉근각지분45분의2전부]	답	6,134,520 6,134,52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20440	1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 344-10 1215㎡	답	11,907,000 11,90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500-8 1406㎡	답	14,060,000 14,0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602-1 1030㎡[매각제외비닐하우스소재]	답	10,300,000 10,3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6타경 20648	1	서구 치평동 266-41 104㎡[이화섭9/112,정미자14/112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매각제외제시외건물있음]	대	44,856,000 44,856,000	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인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2016타경 64440 2016타경 22583 [병합]	2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 135 93㎡	대	2,697,000 2,697,000	
	3	동소 167-6 304㎡	전	7,848,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85-7 104㎡	전	7,848,000	
	4	동소 230 1749㎡	전	29,733,000 29,73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116-7 1941㎡	답	25,233,000 25,23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6타경 16014	1	남구 서동 44-6 261㎡	대	522,547,000 522,547,000	일괄매각.목록2는 2016년까지이행강제금26,966,000원부과되있음
		남구 서동로 20 일용품소매점,사무소1층117.32㎡ 2층12.32㎡ 3층70.2㎡ 제시외 주방 등 79.6㎡[제시외건물포함]	근린시설,주택		
[자동차,중기]					
2016타경 63539	1	사용본거지:남구 백운동 백운로 100, 304동 1106호[백운동,백운휴먼시아3단지] 등록번호:16노3390 차명:SM5 연식:2012	자동차	11,000,000 11,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현대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7. 5. 30.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7. 6. 7.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7. 5. 16.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형남곤